

경남농협 ESG경영, 성숙한 사회적 역할 수행



1 윤해진 경남농협 본부장 2 경남농협이 '2021 함께하는 워킹 챌린지'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고,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 쌀 100포대를 기부했다. 3 경남농협과 무학은 '딱! 좋은 사랑의 효도식탁 전달식'에 참석해 농산물 꾸러미 100세트 등을 전달했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농협은 농협법 제조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는 농협은 설립 취지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경남농협(본부장 윤해진)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 ESG는 먼저 환경보호 부문에서 전 시군지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범농협 임직원이 참여하는 '함께하는 워킹 챌린지 기부 운동'에 4주간 지역본부 임직원이 목표걸음 수 1천713만6천보를 달성, 쌀 100포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또 경남농협은 고항생각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김해 유통센터를 찾아 에코백을 나눠주며 탄소중립 실천을 홍보했고,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는 창녕군을 함께 찾아가 영농폐기물 방치와 소각으로 인

한 환경오염과 산불 방지를 위해 폐비닐 수거 일손 돕기를 했다.

사회공헌 부문에서는 산청군을 찾아 고령농가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유 및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의령군에서는 설맛이 취약계층 농축산물 꾸러미 전달, 함께하는 범농협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향토기업 무학과 함께 '딱! 좋은 사랑의 효도식탁'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밖에 '100년 축산이음 암송아지나눔' 사업을 벌여, 기부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 암송아지를 받아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릴레이 사업을 2회에 걸쳐서 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헌 옷 수거 등도 진행하고, 함께하는 워킹 챌린지 기부 운동도 한 번 더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토기업인 무학과 함께 농민들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농사랑 밥차, 딱! 좋은 사랑의 효도식탁' 캠페인도 8개 시군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윤해진 본부장은 "올해 60주년을 맞아 사회적 기업으로서 농협의 설립 목적을 다시금 가슴에 되새겼다"며 "지역사회의 구심체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남농협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⑦